

학복회(학생복지회)를 소개합니다!!

**학복회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모임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청소년 인권보장,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입시, 학교의 명예를 위해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기분에 따라 학생을 치고 욕하고 괴롭히는 폭력교사들,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강제로 주입시키려 하며, 권리와 인권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도 학교의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과 체벌과 벌점으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학생은 인간이 아닌 공부하는 기계요, 국가를 위해 빛어야 하는 도사기의 '참혹' 같은 존재라 생각 하는!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있습니다.

문제 의식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얻고자 해야만 합니다. 권리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권리'는 권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성들의 권리를 힘있는 남성들이 가져다 준다면, 만약, 배고프고 힘없는 자들에게 배부르고 힘있는 자들이 배풀어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어진 권리 따위는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주어지는 권리에만 의존하게 하게 할뿐입니다!

청소년은 '권리를 스스로 행하는 주체' 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 할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국제조약 등 세계조약에서도 우리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청소년인권이나 권리문제는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힘'이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복회는 '청소년 주체'의 교육문제 해결과, '청소년 주체'의 인권보장, '청소년 주체'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복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복회는 모든 청소년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학복회는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를 학생에게
school for students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자! No.1

(이 내용은 지난 일요일 있었던 학복회 토론회 결과를 정리한겁니다.)

학교붕괴현상 역시,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원인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 교육을 주입하려 하는 교육이 드디어 한계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울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학교붕괴'의 대안일 것입니다.

● 최근 T.V. 프로그램등을 통해 '학교붕괴'가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학교 붕괴'를 마치 '환경 오염'이나 '범죄'와 같은 '문제'로만 보려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은 무조건 학생들의 '싸가지'가 없어져서벌어진 일이라고 덮어 씌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비인간적이고 군대식의 학교로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원인도 해결책도 아닙니다.

'학교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학교 수업이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잡무에 시달려서 수업준비를 충실히 하고 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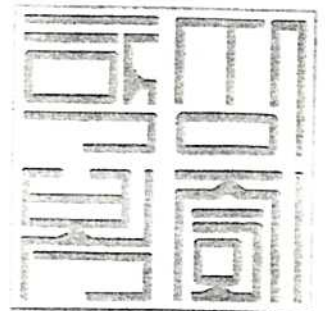
이것은 모든 교육의 기회를 학교와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독점해버린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걸맞는 교육을 공급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갖가지 처리할 공문들을 쥐서 교사인지 회사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선생님들도 T.T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학생'을 교육의 '주체主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엄연한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감은 커질 수 밖에 없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권리를 빼앗기로 오직 일방적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이 되고만 학생들 대부분은 패배감을 안고 수업을 포기합니다.

● '학교 붕괴'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회현상의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문제'시 하는 것은 그저 '호들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학교 붕괴'현상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거듭되는 학생의 인권침해, 비효율적인 교육, 차별 대우, 학교에 실망하는 친구들의 숫자 만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인권을 옹호하고 교육을개혁할 수 있는 필요와 가능성은 큰 것입니다.

이제, 교육의 '손님'으로 온갖 인권 침해를 받고만 있지 말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가 됩시다!



Since 1995

안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겁니다!!